



국제방송영상마켓.

공정 · 상생 방송 산업 조성한다

문체부-한콘진, 128억 투입
편당 제작비 20~30% 지원
우수 방송영상콘텐츠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과 함께 방송영상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송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 시장 변화에 발맞춘 다양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편당 제작비 20~30% 상향 지원 등 128억 원 투입

올해 총 지원 사업 규모는 128억 6천만원이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37억 8천만원) ▲방송영상콘텐츠 포맷 육성 지원(27억 2천만원) ▲뉴미디어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29억 6천만원) ▲어르신문화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10억 5천만원) ▲국제방송문화교류(국제공동제작) 지원(16억 1천만원)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7억 4천만원) 등 6개 사업이 추진된다.

올해는 '사람이 있는 방송콘텐츠'라는 기치 아래, 작년 12월에 발표한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공정·상생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준수사항 점검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제작진 개별 계약 체결 등에 대한 점검은 물론, 임금 체불 및 성폭력 근절 항목을 평가에 반영해 정부의 사회적 책무 실현에 앞장설 예정이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대상으로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우수 방송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한다. 열악한 방송영상 산업 환경과 제작진 인건비 현실

화를 위해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부문의 작품당 지원금을 20~30%까지 확대하고, 단년도 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제작 공정률 50% 미만인 현재 제작 중인 작품도 지원토록 개선했다. 또한 우수한 드라마, 다큐멘터리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방송영상콘텐츠 포맷 육성 지원' 사업은 포맷 제작을 활성화하고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규 포맷 시범 프로그램(파일럿) 제작 ▲해외 쇼케이스 행사(MIP)포맷, 아시아티비포럼(ATF) 참여 ▲국제 포맷마켓(BCWW FORMATS) 개최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친다. 특히 방송 포맷 분야의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해 방송포맷 연구소(방송 포맷 랩)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며 2월 말에 공고할 예정이다.

'뉴미디어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우수한 방송콘텐츠를 발굴한다.

웹·모바일 시대에 최적화된 콘텐츠와 새로운 방송제작 기술 접목, 이종 장르 등을 결합한 방송콘텐츠 발굴 등을 위해 웹드라마, 웹예능·교양·다큐, 융합형 뉴콘텐츠 3개 부문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뉴미디어는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콘텐츠와 구별하여 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서비스하는 영상콘텐츠를 총칭한다.

아울러 웹드라마, 개인방송 콘텐츠 등 뉴미디어 콘텐츠가 부상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해 뉴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유통 지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뉴미디어 콘퍼런스(NewCon)가 오는 8월에 열릴 예정이다.

'어르신문화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고령사회에 대한 세대 간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 활동 등 어르신들의 생활 전반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교양·예능 등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특히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이와 관련한 공공콘텐츠(다큐멘터리) 지원 부문을 신설해, 공적 영역에서의 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 수출 촉진 및 한류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제방송문화교류(국제공동제작) 지원' 사업과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에는 총 2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제방송문화교류(국제공동제작) 지원' 대상 조건 완화, 선정 작품 다양화

올해부터 '국제방송문화교류(국제공동제작) 지원' 사업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연합체(컨소시엄)가 아니라도 방송사나 제작사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조건을 완화했다. 또한 다큐뿐만 아니라 드라마, 예능, 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제작이 가능하도록 비(非)다큐멘터리 분야에서도 3개 작품을 최우선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단, 모든 작품은 국가 간 이해와 공감이 가능한 소재와 주제를 표현한 작품이어야 한다.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은 국내 우수 방송영상물의 재제작 지원을 통한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일본·중국 및 수출 지역 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남미, 독립국가연합(CIS), 중동·북아프리카(MENA) 등 신흥시장에 대한 기존 지원금의 20%를 늘려 작품당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2019 방송영상콘텐츠 지원 사업 설명회'는 내일 서울산업진흥원 상암 본원 2층 콘텐트홀에서 열리며, 설명회 참가와 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kccc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

'노벨문학 창조하는 무주 문인협회' 이명희 씨 제7대 회장으로 선출

한국문인협회 무주지부는 무주군 안성면 이명희 씨(72)가 제7대 회장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잠미꽃처럼 아름답거나 화려하지 않지만 은은한 향내를 풍기는 사프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며 "그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마음을 맞춰온 회원들과 함께 무주지부를 활성화시키고 문학 활동 또한 더욱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6년부터 열린 시문학 창작회에서 이 운동 교수에게 배우며 시(詩) 창작활동을 펼쳐왔던 이명희 회장은 지난 2007년 5월 국제문예지를 통해 등단(시(詩) 라이카어, 산에 오르면, 다시 그림을 그릴 우리들의 공간)했으며 '구두쇠'와 '동지', '국제문에 찬강호', '열린시문학', '놀이문학', '형편' 등에 작품을 게재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한국문인협회 무주지부 회원들은 "문학에 대한 열정과 한국문인협회 무주지부에 대한 애정이 깊은 분인 만큼 믿음이 간다"라며 "무주문학에 희망을 꽃피울 수 있는 훈풍이 돼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명희 회장은 한국문인협회 회원(2011~)으로서 국제문예전북지회장과 한국문인협회 전북지회 이사, 무주지부 감사 등을 역임했다.

또 열린시와 전북문학, 전북시인협회 회원으로도 활동하며 놀이문학회 이사진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문인협회 무주지부에는 현재 28명의 회원들이 다양한 작품 활동과 함께 반딧불축제 등 관내 외 행사에서 시회전을 개최하는 등 재능기부를 통한 나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음악분야 저작권신탁관리, 분배 불투명·운영 방안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들의 저작권 분배가 불투명하고, 운영이 방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지협)·한국음악산업협회(음산협)·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관리 4개 단체에 대해 업무점검을 한 결과다.

음지협에서는 주제·배경·시그널 음악의 방송사용료 관련 일부 회원들이 허위로 확인서를 제출, 과도한 금액을 분배받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료는 방송사 음악감독 또는 회원(관리자)이 제출한 확인서 증인으로 분배한다. 과다 신청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음지협은 분배 검증을 위한 인력과 사업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특정인에 대한 과다 분배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다른 회원의 분배금 축소를 초래, 정당한 권리자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며 지적했다.

또 음지협은 2016년, 2017년 일반회계 당기순손실 규모가 6억2000만원, 28억3000만원으로 확대됐음에도 전임회장에 임기 전체 연봉 총액에 육박하는 수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회장이 재임기간 중이던 2017년 워크숍 명목으로 제주도에 두 달 가량 체류한 것에 대해 1000만원 이상의 출장비도 지급했다. 퇴임 직전에는 예비규정을 개정, 퇴임 이후에도 협회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항공권과 해외출장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음지협은 2016, 2017년에 개선 명령을 받은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회장에 의

한 지명이사 제도 폐지, 회원 대상 임원보수 공개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문체부는 "음악 저작권 시장에서의 규모와 독점적 지위를 고려할 때, 협회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이면서 보상금수령 단체이기도 한 음산협은 실연자에 비해 관리자 과잉이 상대적으로 쉬움에도, 매년 보상금 분배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체부는 "상급 관리규정을 위반해 특정인에게 보상금을 선지급하거나 보상금 산정 시의의적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협회 과실로 인한 분배자료 소실, 회원 민원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고 전했다.

음산협은 2015년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했다. 작년 두 차례 채용공고를 냈으나 임용대상자 선임 이사회 부결, 인사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후속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또한 임원 결격 사유 강화,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2016년도 업무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무처 운영을 위해 신탁회계(사용료 징수·분배 관련 계정)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이자 보상금 수령단체다. 음산협과 마찬가지로 매년 보상금 분배율 개선을 지적받고 있다. 3년 이상 관리자에게 미지급되고 있는 보상금은 작년 기준 수십억 원 규모다. 실연자 정보 확충 등 협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뉴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